

# 자모 빈도에 의한 통신 언어의 특성 연구

강승식\*, 김보영\*\*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전공

e-mail:sskang@kookmin.ac.kr

## A Study on the Features of Communicative Languages by Frequency Information

Seung-Shik Kang\*, Bo-Young Kim\*\*

\*School of Computer Science, Kookmin University and AITrc,

\*\*Dept. of Computer Science, College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 요 약

인터넷 채팅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환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은 일정한 규칙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용어의 생성 규칙과 음운론적 변형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통신 용어의 사용 빈도의 분석과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통신 언어의 생성 원인을 분석한다. 통신 환경에서 변형되어 사용되는 어휘들의 표준어와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형태에 대해 각각 초성, 중성, 종성 빈도를 계산하고 통신 용어와 표준어의 자모 사용 비율 변화를 분석하여 통신 용어가 생성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 1. 서론

인터넷 채팅이나 대화방, 문자 메시지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은 통신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는 욕구 등에 의해 일상 언어와는 다른 방향의 언어 현상들이 발견된다. 어휘를 축약하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으로 통신 속도를 신속하게 하려는 경제적 동기와 일상 용어와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친밀감이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적 동기, 제도과 규율이라는 경직된 현실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경험하려는 사회 심리적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통신 용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 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단순히 문자에 의존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어휘를 생성하게 할 근본적인 원인이다. 표준어가 변형되어 통신 용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자모 빈도를 조사하고,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통신 용어가 생성되는 규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자음과 모음의 사용 빈도 변화 및 통신 환경의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통신 용어의 특성을 분석한다.

### 2. 통신 용어의 빈도 조사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통신 언어 어휘집'의 통신상에서 변형되어 사용되는 어휘들에 대하여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이 어휘들의 전체 음절수는 표준어의 경우 4,780 음절이고 통신 용어는 4,629개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을 조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빈도수를 조사하여 각 자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1, 표2, 표3에 수록하였다. 표에서 '증감율1'은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출현 비율의 증감율이고, '증감율2'는 표준어의 출현 비율에 대한 통신 용어의 출현 비율이다.

#### 2.1 초성 빈도

본 연구는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를 통하여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한글 자모의 빈도 조사에서 저빈도 초성 9개는 모두 쌍 자음 5개와 격음 4개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신 어휘의 표준어 및 통신 용어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쌍자음과 격음은 'ㄷ'과 'ㅌ'을 제외한 쌍자음 및 격음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ㄱ'과 'ㄷ'으로 각각 2.49%와 2.45%이며, 'ㄷ/ㅌ/ㅎ/ㅍ/ㅍ/ㅍ'이 각각 2.21%, 1.51%, 1.33%, 1.25%, 1.10% 증가하였다. 즉, 1%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초성 7개 중에서 'ㄷ'과 'ㅎ'을 제외한 5개의 초성이 모두 경음 및 격음으로 경음화와 격음화가 통신 용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초성 빈도

| 초성 | 표준어   | 통신 용어 | 증감율1  | 증감율2 |
|----|-------|-------|-------|------|
| ㄱ  | 11.74 | 10.41 | -1.33 | 0.85 |
| ㅋ  | 1.15  | 1.60  | +0.45 | 1.35 |
| ㄴ  | 5.06  | 6.05  | +0.99 | 1.16 |
| ㄷ  | 11.44 | 13.65 | +2.21 | 1.16 |
| ㅌ  | 0.94  | 3.39  | +2.45 | 3.49 |
| ㄹ  | 9.14  | 6.80  | -2.34 | 0.72 |
| ㅁ  | 6.30  | 5.57  | -0.73 | 0.86 |
| ㅂ  | 4.75  | 4.47  | -0.28 | 0.91 |
| ㅃ  | 0.90  | 1.71  | +0.81 | 1.84 |
| ㅅ  | 7.47  | 6.18  | -1.29 | 0.80 |
| ㅆ  | 0.61  | 1.71  | +1.10 | 2.72 |
| ㅇ  | 19.04 | 13.50 | -5.54 | 0.69 |
| ㅈ  | 8.68  | 5.92  | -2.76 | 0.66 |
| ㅊ  | 0.98  | 1.10  | -0.12 | 1.09 |
| ㅊ  | 1.95  | 1.51  | -0.44 | 0.75 |
| ㅋ  | 0.71  | 3.20  | +2.49 | 4.35 |
| ㅌ  | 1.84  | 3.35  | +1.51 | 1.76 |
| ㅍ  | 1.00  | 2.25  | +1.25 | 2.17 |
| ㅎ  | 6.30  | 7.63  | +1.33 | 1.17 |

반면에, 빈도수 감소된 초성은 'ㅇ'이 빈도수 910개에서 625개로 절대 증감율이 5.54%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ㅈ'

과 'ㄹ'이 각각 2.76%, 2.34% 감소하였으며, 'ㄱ/ㅇ/ㅈ'은 1.33%, 0.73%, 0.44% 감소하였다. 초성 빈도의 증감이 일어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 용어에서 초성 'ㅇ'의 빈도수가 낮아진 이유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축약 현상에 의해 'ㅇ'이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ㅇ' 탈락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축약하여 초성 'ㅇ'이 탈락된 경우
- 수업 → 씩
  - 수입 → 올
  - 내일 → 날
  - 서울 → 실
  - 다음주 → 담주
  - 가시어요 → 가샤요
  - 어서오세요 → 어쵸요
  - 미안하다 → 만하다
  - 메일 → 멜
  - 내용없음 → 냉무
  - 에인 → 엔
  - 도메인 → 도멘
  - 제임방 → 쟁방
  - 언니야 → 언나

- (나)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여 초성 'ㅇ' 탈락
- 같은 → 가튼
  - 알았다 → 아라따
  - 싫어 → 시러
  - 알어 → 아러
  - 많아 → 마너
  - 아니잖아요 → 아니자나여
  - 없어 → 없쳐(얼피)
  - 간에 → 가네
  - 들어와 → 드리와
  - 분위 → 부늬기
  - 운영자 → 우늬자
  - 있어요 → 이쵸요
  - 맞아 → 마저(마조)
  - 죽음 → 주깁
  - 싫어 → 시피(시포)
  - 알았어 → 아라따
  - 입어나다 → 인나타

- (다) 약어를 사용하여 초성 'ㅇ'이 탈락된 경우
- 메일미팅 → 메팅
  - 인터넷 뱅킹 → 넷뱅
  - 아트바이트 → 알바
  - 정기모임 → 정모
  - 음악캠프 → 음캠프
  - 즐거운 게임하다 → 즐겅
  - 뮤직비디오 → 뮤비
  - 야한여자 → 야녀
  - 야한 동영상 → 야동
  - 즐거운 감상 → 즐감
  - 생일파티 → 생파

둘째, 통신 언어의 초성 빈도수 1위는 'ㄷ'인데 이는 표준어 'ㄷ'이 'ㄷ'으로 바뀌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는 'ㄷ'의 증가율이 2.21%이고 'ㄷ'의 감소율 2.76%로부터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 (가) 초성 'ㄷ'이 초성 'ㄷ'으로 변환된 경우
- 정말 → 덩말
  - 요즘 → 요들
  - 좋아하다 → 동아하다
  - 나중 → 낭중
  - 주소 → 듀소(듀서)
  - 지금 → 디쿰
  - 진짜 → 딘짜
  - 갑자기 → 갑다기
  - 남자 → 낭자
  - 자기 → 냐기

셋째, 초성 'ㄹ'은 'ㅇ'과 'ㄷ'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성 'ㄹ'의 탈락과 축약에 의해 초성이 중성으로 전환되는 현상 때문이다. 초성 'ㄹ'이 중성으로 전환되는 현상에 의해 중성 'ㄹ'의 빈도수가 증가되고 있다.

- (가) 초성 'ㄹ'이 탈락된 경우
- 그런데 → 건데(군데, 근넷)
  - 얼른 → 언녕(언능)
  - 원래 → 원네
  - 그렇다고 → 그타구
  - 그렇죠 → 그쵸
  - 그렇게 → 그케
  - 이렇게 → 이케
  - 그렇지 → 구징

- (나) 초성 'ㄹ'이 중성으로 전환된 경우
- 가르키다 → 갈키다
  - 그러면 → 글면(글문)
  - 그래도 → 글도(글두)
  - 모르다 → 몰나(몰오나)
  - 사랑하다 → 살양하다
  - 오랜만 → 올만(올엔만)
  - 여기로 → 열투
  - 그렇죠 → 글쳐
  - 그리고 → 글거(글구)
  - 그렇다면 → 글어타문
  - 노래 → 놀어
  - 머리 → 멀어
  - 새로운 → 쉐운
  - 여러분 → 올분
  - 그러는데 → 글언데
  - 쑥스럽다 → 쑥술

넷째, 빈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초성 'ㄱ'은 주로 중성 'ㄱ'과 초성 'ㅇ'이 합성되어 'ㄱ'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 축하 → 추카(추카)
- 그렇고 → 그리쿠(글쿠)
- 그렇게 → 그케(글케)
- 어떻게 하라고 → 어카라저
- 착하다 → 차카타
- 축하하다 → 추카하다
- 그렇군 → 글어퀸(글문)
- 특히 → 트키
- 그렇다고 → 글타고
- 저렇게 → 절케

- 어떻게 하나 → 어카냥
- 좋겠다 → 조케마
- 왜이렇게 → 왜케(왜케, 왜케, 원케)
- 어떻게 → 어떡케(어케, 일케, 어뜨케, 오뜨케, 오뜨케)
- 어떻게 하죠 → 어카저
- 어떻게 하지 → 어카징

다섯째, 초성 'ㄱ'과 유사하게 표준어 빈도수는 매우 낮는데 통신 용어의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ㄷ'의 증가 요인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가) 초성 'ㄷ'이 'ㄷ'으로 변환된 경우
- 갔다 → 가따
  - 좋겠다 → 조케따
  - 규명이 → 규명이
  - 알았다 → 아라따
  - 없다 → 읍따(읍따, 읍따)
  - 일등 → 일똥
  - 그랬더니 → 그래떠니
  - 절대 → 열똥
  - 있답니다 → 이따똥
  - 당기다 → 똥기다

- (나) 초성 'ㅅ'이 'ㄷ'으로 변환된 경우
- 갑사 → 갑따(갑따르)
  - 고맙습니다 → 고따똥니다
  - 사람 → 따람
  - 쑥스럽다 → 쑥뜨럽다
  - 심심하다 → 똥똥하다
  - 안녕하세요 → 안똥하똥음
  - 죄송하다 → 지똥하다
  - 감사하다 → 감따하다
  - 열심히 → 열똥미(열똥혀, 열똥혀, 읍똥똥, 읍똥미)
  - 게시판 → 게똥판
  - 그래서 → 글어똥
  - 감상 → 감똥
  - 실망 → 똥망
  - 사랑하다 → 따랑하다
  - 역시 → 역똥(역똥)
  - 피시방 → 피똥방
  - 소리 → 썩리

- (다) 초성 'ㅈ'이 초성 'ㄷ'으로 변환된 경우
- 진짜 → 진따(진따, 진따)
  - 짜증 → 따증
  - 갑작이야 → 갑똥기하(갑똥똥, 갑똥기, 갑똥기)
  - 진짜로 → 진따루(진따루, 진따러, 진따러, 진따러)
  - 깜짝 → 깜따
  - 일찍 → 일똥
  - 갑작이아 → 갑똥기하(갑똥똥, 갑똥기, 갑똥기)

여섯째, 초성 'ㄷ'은 빈도 순위는 변화가 없지만 증가율이 1.51%이다. 그 원인을 살펴 보면 주로 초성 'ㄷ'이 'ㄷ'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었다.

- 남자친구 → 남똥(남똥)
- 미치다 → 미티다
- 전체 → 전똥
- 축하축하 → 추카추카
- 친하다 → 띠하다
- 며칠 → 똥칠
- 엄청나다 → 읍똥나타
- 참고 → 탐고
- 충격적 → 똥격적
- 아침 → 아똥(아똥)

표 2.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중성 빈도

| 모음 | 표준어   | 통신 용어 | 증감율1  | 증감율2 |
|----|-------|-------|-------|------|
| 없음 | 0.38  | 1.04  | +0.66 | 2.67 |
| ㅏ  | 27.26 | 27.57 | -0.31 | 0.98 |
| ㅓ  | 4.21  | 4.39  | -0.18 | 1.01 |
| ㅕ  | 0.71  | 2.10  | -1.39 | 2.85 |
| ㅗ  | 0.02  | 0.02  | 0     | 0    |
| ㅛ  | 10.38 | 13.52 | +3.14 | 1.26 |
| ㅜ  | 4.60  | 3.69  | -0.91 | 0.78 |
| ㅠ  | 3.49  | 3.87  | -0.38 | 1.07 |
| ㅡ  | 0.38  | 0.80  | -0.42 | 2.06 |
| ㅝ  | 10.08 | 5.72  | -4.36 | 0.55 |
| ㅞ  | 0.92  | 1.32  | +0.40 | 1.39 |
| ㅟ  | 0.21  | 0.15  | -0.06 | 0.70 |
| ㅠ  | 0.73  | 0.28  | -0.45 | 0.37 |
| ㅡ  | 1.86  | 2.42  | +0.56 | 1.26 |
| ㅢ  | 6.51  | 8.75  | +2.24 | 1.30 |
| ㅣ  | 0.63  | 0.28  | -0.35 | 0.43 |
| ㅤ  | 0.04  | 0.78  | +0.74 | 18.0 |
| ㅥ  | 0.36  | 3.35  | +2.99 | 9.12 |
| ㅦ  | 0.40  | 1.27  | +0.87 | 3.11 |
| ㅧ  | 9.48  | 5.96  | -3.52 | 0.61 |
| ㅨ  | 0.06  | 0.82  | +0.76 | 12.7 |
| ㅩ  | 17.30 | 11.90 | -5.40 | 0.67 |

2.2 중성 빈도

모음의 변화 양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표기하는 형태가 많았다. 중성의 빈도수에 따른 표준어와 통신 언어의 백분율이 2%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ㄱ, ㄷ, ㅈ, ㅊ, ㅌ, ㄴ, ㄹ'로 5개이었으며, 사용 빈도수에 따른 백분율

이 10% 이상인 것이 표준어에서는 ‘ㄱ, ㅋ, ㆁ, ㄴ’인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ㄱ’의 사용 백분율이 10.08%에서 5.72%로 낮아지면서 ‘ㄱ, ㅋ, ㆁ’만이 남았다.

첫째, 중성 ‘ㄱ’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성 ‘ㄴ’의 사용 빈도수가 표준어에서는 827개로 백분율 17.30%이었던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551개로 백분율 11.90%로써 5.40% 차이로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ㄴ’이 ‘ㄱ’로 바뀌는 현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성 ‘ㄴ’의 빈도수는 낮아진 반면 중성 ‘ㄱ’의 빈도수는 17개 밖에 되지 않던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 156개로 백분율 2.99%가 늘었다. 이는 귀엽고 애교스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 언어의 친부함에서 탈피하려는 의도와 함께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ㄴ’이 ‘ㄱ’로 바뀌는 현상과 언어가 축약되면서 나타나는 ‘ㄴ’탈락이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가) 중성 ‘ㄴ’이 ‘ㄱ’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다시 → 다쉬                  | 당연히 → 당여히    |
| 독서실 → 독서쉴                | 잡 → 켜        |
| 레디 → 래뒤                  | 많이 많이 → 마니마니 |
| 마지막 → 마취막                | 멋지다 → 멋취다    |
| 스토리 → 스토취                | 신문지 → 신문취    |
| 아버지 → 아버취(압취)            | 언니 → 언취(언취)  |
| 우리집 → 울취                 | 위문편지 → 위문편취  |
| 있답니다 → 이따취되              | 잡소리 → 잡스취    |
| 잠시 → 잠취                  | 지금 → 취금(췌)   |
| 열심히 → 열취히(열취히, 열취히, 열취히) |              |

(나) 중성 ‘ㄴ’이 ‘ㄴ’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전짜로 → 전짜러   | 싫다 → 췌다(췌다) |
| 같이 → 가취     | 고등 → 고췌     |
| 그러니까 → 그러니깐 | 잡짜하다 → 잡췌하다 |
| 다시 → 다시     | 똑같이 → 똑가취   |
| 많이 → 마니     | 미리 → 미취     |
| 목소리 → 목스취   | 무지 → 무취     |
| 빨리 → 빨취     | 사건 → 사취     |
| 소심하다 → 소췌하다 | 언니 → 언취(영취) |

(다) 축약 현상으로 중성 ‘ㄴ’이 탈락한 경우

|              |                  |
|--------------|------------------|
| 개인전 → 갠전     | 주인장 → 췌장         |
| 우리집 → 울취     | 데이트 → 데오         |
| 가입하다 → 갠하다   | 넉넉함 → 넉넌         |
| 사이트 → 췌트     | 언니야 → 언나         |
| 잡소리 → 잡췌     | 제일로 → 췌루(췌루, 췌로) |
| 공식 홈페이지 → 공취 | 이리와 → 일와         |
| 그러니까 → 갠까    | 선생님 → 췌          |

(라) 중성 ‘ㄴ’이 다른 중성으로 변환된 경우

|                  |             |
|------------------|-------------|
| 빨리 → 빨랑          | 같이 → 가차     |
| 시원한 → 선한         | 지기요 → 저겨    |
| 아직 → 아췌          | 이다음 → 옥담    |
| 언니야 → 언랴(은나, 언나) | 조심하다 → 조췌하다 |

둘째, 중성 ‘ㄱ’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표준어에서는 빈도수 482개로 백분율 10.08%이었으나,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 265개로 백분율 5.72%로 줄었다. 이것은 ‘ㄱ’이 ‘ㄴ’로 변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중성 ‘ㄱ’의 빈도수가 줄어든 반면 중성 ‘ㄴ’의 사용 빈도수는 표준어 496개이었던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 626개로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 ‘ㄱ’이 ‘ㄷ’로 변환되어 사용하는 것도 많은데, 역시 중성 ‘ㄷ’도 표준어 사용 빈도수는 311개 백분율 6.51%이었던 것을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 405개 백분율 8.75%로 늘어난 원인이 된 것이다.

(가) 중성 ‘ㄱ’이 ‘ㄷ’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감동적 → 감뵤적      | 가족 → 가췌     |
| 경지사항 → 경지사향    | 고마워 → 거마워   |
| 경기도 → 경기더      | 계속하다 → 계췌하다 |
| 구독하다 → 구덕하다    | 그동안 → 그딩안   |
| 강릉 → 강뵤        | 꼬리말 → 췌꼬리말  |
| 노래방 → 노래방(네뵤방) | 노력하다 → 너력하다 |
| 놀라다 → 놀라나      | 놀려오다 → 놀려오나 |
| 도리도리 → 더리더리    | 노배하다 → 더배하다 |
| 동감하다 → 뵤감하다    | 동생 → 뵤생(뵤생) |
| 동영상 → 뵤영상      | 괴상하다 → 뵤췌하다 |
| 전짜로 → 췌짜러(췌짜러) | 동족하다 → 뵤족하다 |
| 떡바로 → 췌바로(췌바로) | 모습 → 메췌(메췌) |
| 보고싶다 → 버겨싶다    | 뵤하다 → 췌뵤하다  |

최종하다 → 췌췌하다      토요일 → 터뵤

(나) 중성 ‘ㄱ’이 ‘ㄷ’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그리고 → 구러구(구구, 구구, 구구, 구구, 구구) | 말대로 → 말대루     |
| 정말로 → 텡말로                     | 서로서로 → 서루서루   |
| 바로바로 → 바루바루                   | 그래도 → 그래두(글두) |
| 아무래도 → 아물두                    | 여기로 → 열루      |
| 그렇다고 → 글타구 바보 → 바부            | 진짜로 → 췌짜루     |
| 별로 → 별루                       | 앞으로 → 아부루     |

(다) 축약으로 인해 중성 ‘ㄴ’이 탈락된 경우

|              |             |
|--------------|-------------|
| 공식 홈페이지 → 공취 | 동갑 → 갠      |
| 야한소설 → 야췌    | 어서오세요 → 어췌요 |
| 프로그램 → 플그랩   | 프로필 → 플뵤    |

(라) ‘ㄱ’이 다른 중성으로 변환된 경우

|                |             |
|----------------|-------------|
| 고소하다 → 고췌하다    | 올리다 → 올리나   |
| 좋아하다 → 췌아하다    | 주수 → 췌수     |
| 그래도 → 글애드      | 정말로 → 텡말로   |
| 진짜로 → 췌짜물      | 하도 → 하드     |
| 바보 → 밥(바비, 밥뵤) | 숨췌 → 삼췌     |
| 목소리 → 목서취      | 조심하다 → 췌심하다 |
| 포함 → 록(췌)      | 춤 → 뵤(췌)    |

셋째, 중성 ‘ㄴ’의 사용 빈도수도 표준어 453개로 백분율 9.48%이었던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가 276개로 백분율 5.96%가 되었다. 이것은 중성 ‘ㄴ’이 ‘ㄷ’나 ‘ㄱ’로 변환되는 경우와 언어가 축약되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가) 중성 ‘ㄴ’이 ‘ㄷ’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그대로 → 구대루    | 그냥 → 구냥     |
| 그렇습니다 → 구랍뵤까 | 그러니까 → 구러니까 |
| 급매달 → 굶달     | 금지하다 → 굶지하다 |
| 궁금하다 → 궁궁하다  | 기쁘다 → 기뵤나   |
| 깨끗이 → 췌끗이    | 나쁘다 → 나뵤나   |
| 방금 → 방궁      | 테이프 → 테이푸   |
| 쓰레기통 → 췌레기뵤  | 어췌든 → 어췌뵤   |
| 응원 → 응뵤      | 이쁘다 → 이부나   |
| 주근깨 → 췌근깨    | 키스 → 키수     |
| 하늘 → 하뵤      | 필승 → 뵤승     |

(나) 중성 ‘ㄴ’이 ‘ㄷ’로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             |               |
|-------------|---------------|
| 그래서 → 거래서   | 그런데 → 췌데(췌뵤)  |
| 들어와 → 더와    | 들어오다 → 더러오나   |
| 얼른얼른 → 언뵤언뵤 | 콘서트 → 췌췌(췌췌터) |
| 지금 → 지췌     | 그림 → 거뵤(거뵤)   |
| 그런가 → 거런가   | 오늘 → 오뵤       |
| 요즘 → 췌췌(요췌) | 하루 → 하뵤       |

(다) 언어 축약으로 중성 ‘ㄴ’이 탈락한 경우

|                 |          |
|-----------------|----------|
| 가을 → 갠          | 가르쳐 → 갠쳐 |
| 그냥 → 갠          | 그런데 → 췌데 |
| 내용없음 → 내뵤       | 조금 → 췌   |
| 다음주 → 담주        | 러브 → 뵤   |
| 아르바이트 → 알르비(알바) | 오늘 → 올   |

(라) 중성 ‘ㄴ’이 다른 중성으로 변환된 경우

|           |             |
|-----------|-------------|
| 그림 → 고뵤   | 그만 → 고만     |
| 그만한 → 고만한 | 다이어트 → 다이오트 |
| 방금 → 방뵤   | 이쁘다 → 이뵤디   |
| 고등 → 고뵤   | 그냥 → 기냥     |
| 말쭙 → 말췌   | 당근 → 당근     |

2.3 중성 빈도

받침이 두 글자인 ‘쓰, 비, 너, 러’은 주로 신속한 언어 전달을 위해 두 번 타자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타수를 줄여 하나의 받침으로 쓰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어 받침 없는 글자로 변환된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중성 ‘쓰’이 탈락된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갔다 → 가따    | 그랬더니 → 그래뵤니 |
| 머었어 → 머겨두  | 바꿨어 → 바껴췌   |
| 봤다 → 바따    | 버텼다 → 뵤따    |
| 알았다 → 아라따  | 알았죠 → 아췌    |
| 어디까지 → 오딧지 | 알았지 → 알췌    |

또한, '싫어 → 시러'와 같이 중성 'ㅎ'은 통신 언어에서는 받침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성 'ㅁ'은 주로 '내용없음 → 내염'이나 '재수없어 → 재설프 / 재설뜨'와 같이 '없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ㄴ'이나 'ㄷ'으로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성 'ㄴ'도 '많이 → 많위'로 쓰인 한 개를 제외하고는 대개 소리나는 대로 쓰여 '많이 → 마니'와 같이 초성 'ㄴ'으로 쓰이거나 '그랬잖아 → 그랫잔야'와 같이 'ㄴ'받침으로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표 3.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중성 빈도

| 중성 | 표준어   | 통신 용어 | 증감율1  | 증감율2 |
|----|-------|-------|-------|------|
| 없음 | 64.77 | 58.28 | -6.49 | 0.87 |
| ㄱ  | 3.58  | 3.84  | +0.26 | 1.04 |
| ㄴ  | 9.29  | 8.64  | -0.65 | 0.90 |
| ㄷ  | 0.33  | 0.02  | -0.31 | 0.06 |
| ㄷ  | 0.04  | 0.06  | +0.02 | 1.50 |
| ㄹ  | 5.17  | 8.45  | +3.28 | 1.58 |
| ㄹ  | 0.08  | 0.00  | -0.08 | 0.00 |
| ㄱ  | 4.37  | 6.11  | +1.74 | 1.35 |
| ㄷ  | 1.65  | 2.40  | +0.75 | 1.41 |
| ㅁ  | 0.36  | 0.04  | -0.32 | 0.12 |
| ㅅ  | 0.50  | 0.99  | +0.49 | 1.92 |
| ㅅ  | 0.65  | 0.15  | -0.50 | 0.23 |
| ㅇ  | 7.28  | 10.30 | +3.02 | 1.37 |
| ㅈ  | 0.08  | 0.28  | +0.20 | 3.25 |
| ㅈ  | 0.00  | 0.26  | +0.26 | N/A  |
| ㅊ  | 0.27  | 0.02  | -0.25 | 0.08 |
| ㅊ  | 0.27  | 0.09  | -0.18 | 0.31 |
| ㅎ  | 1.30  | 0.04  | -1.26 | 0.03 |

첫째, 중성의 빈도수에 따른 백분율을 살펴보면 받침이 없는 것이 표준어와 통신 언어가 각각 64.77%와 58.28%를 차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통신 언어에서는 특성상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글자 자판 배열의 용이성과 타수의 절약 등을 이유로 받침을 주로 쓰지 않아 받침이 없는 중성의 빈도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이러한 점은 초기에 글자 타수를 줄여 시간을 아끼려는 경제적인 이유가 적어진 반면, 문자 언어의 단점을 줄이고 음성 언어와 같은 감정 전달의 효과를 추구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

둘째, 중성 'ㄹ'의 빈도수가 늘어난 이유는 언어가 축약을 하면서 초성 'ㄹ'이 변환되어 중성 'ㄹ'로 사용되거나 받침에 'ㄹ'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가) 초성 'ㄹ'이 중성 'ㄹ'로 변환된 경우)  
 노래 → 놀래                      마무리하다 → 마물하다  
 새로운 → 셀운                    머리 → 멀이  
 사랑해 → 살해                    가르켜 → 갈켜  
 목소리 → 목술이                  그리고 → 걸구

(나) 중성 'ㄹ'이 추가되어 사용된 경우  
 무엇으로 → 멀로                  모르다 → 멀루다  
 사랑스런 → 살랑술연              사랑해 → 썰랑해  
 아이디어 → 알뵤                    아르바이트 → 알르비  
 여기로 → 열루                      이리와 → 일화  
 이르다 → 일루다                    노래 → 일래

셋째, 중성 'ㅇ'은 표준어에서의 사용 빈도수가 348개로 7.28%이었던 것이 통신 언어에서는 빈도수가 477개로 10.30%로 늘었다. 이것은 언어를 축약하여 사용하거나 단어의 받침에 'ㅇ'을 사용함으로써 애교가 있고 대화를 함에 있어 부드러운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가) 소리나는 대로 쓰거나 중성 'ㅇ' 추가  
 그런데 → 건뎡(궁뎡, 궁뎡)              고마워 → 고마버영  
 국룰 → 굴룰                              그걸구나 → 그러루남  
 누나 → 누남                              나중 → 남중  
 따라 → 따짖                              맞아 → 맞앙(마짱)  
 만들다 → 뎡글다                          아버지 → 아부딩

(나) 중성 'ㄴ'이 'ㅇ'으로 변환된 경우  
 기분 → 기봉                              사진 → 사짱

신기하다 → 성기하다                      아무튼 → 아무똥(암똥)  
 안돼 → 암돼(암대)                      액션 영화 → 액쑈 영화  
 인간 → 일간                              진짜 → 징짜  
 친구 → 칭구(칭그, 쟁구, 칭그, 텅구, 텅그)  
 안녕하세요 → 앙녕하세요(앙똥하세요, 앙똥하세요)

넷째, 중성 'ㄱ'의 사용 빈도수도 늘었는데, 이는 초성 'ㄱ'이 중성 'ㄱ'으로 변환되어 사용하거나 받침에 'ㄱ'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 초성 'ㄱ'이 중성 'ㄱ'으로 변환된 경우  
 고마워 → 고마버영                      재미있다 → 쟈있다  
 나머지 → 남어영                          너무너무 → 넘남  
 아니면 → 아남                            너무 → 넘넘우, 넘후, 넘회  
 아무튼 → 암똥(암똥, 암똥, 암우튼 암똥, 암똥, 암후튼)

(나) 받침이 중성 'ㄱ'으로 변환된 경우  
 급급하다 → 급급하다                      그런데 → 근뎡  
 미안해요 → 마내영                          없애 → 없뎡(엄뎡)  
 안녕하세요 → 앙녕하세요                  그리고 → 글곱  
 없다 → 엄다(엄따, 음다, 음다)

다섯째, 표준어에서는 중성의 빈도수가 8위에서 통신 언어에서는 15위로 떨어진 중성 'ㅎ'의 특성을 살펴보면 'ㅎ'이 탈락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의 축약이나 소리나는 대로 발음되어 중성 'ㅎ'과 초성 'ㄱ'이 합성되어 초성 'ㄱ'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타수를 줄임으로써 편리성과 신속성을 꾀하고 있다.

(가) 중성 'ㅎ'이 탈락되어 사용된 경우  
 그렇습니까 → 구렇습까                      그렇지만 → 구러똥남  
 그렇지 → 구정                              그렇죠 → 그러쳐  
 좋아 → 저야(저양, 저야)                      좋은 하루 → 존하루  
 좋아하다 → 저야하다(저야하다, 저야하다)

(나) 'ㅎ + ㄱ' → 'ㄱ'을 변환되어 사용된 경우  
 왜이렇게 → 웰케(왜케, 왜케)                  그렇구나 → 그리루남  
 그렇구나 → 그리루남(글루나)                  저렇게 → 질케  
 어떻게 하라고 → 어카라커                      그렇게 → 그케(글케)  
 좋겠다 → 조케타                                  그렇고 → 그리루  
 어떻게 → 어뎡케(어깁, 어케, 오뎡케, 오뎡케, 오케)

3. 결론

통신 환경에서는 제약된 환경에서 의사 소통의 신속성과 경제성, 표현의 다양성,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등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용어는 표준어에 비해 다양한 음절이 사용되는 음절의 다양화 현상을 비롯하여 축약 및 발음대로 쓰기 등의 언어 현상이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환경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표준어와 통신 용어의 자모 빈도를 조사하였다. 자모 빈도의 차이가 큰 자소를 중심으로 빈도수 차이점을 유발하는 요소를 추적하고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통신 용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참고문헌

- [1] 문화관광부, 통신 언어 어휘집, 연구보고서(조오현 책임), 2001.
- [2] 권연진, "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연구", 언어과학, 5권, 2호, pp.58-62, 1998.
- [3] 김홍규, 강범모, 한글 사용 빈도의 분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 [4] 조찬식,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권 4호, pp.177-196, 2001.
- [5] 차인태, "PC 통신 언어 분석", 음성과학, 8권 3호, pp.75-91, 2001.
- [6] 이정복, "컴퓨터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국어학회, 1997.
- [7] 이정복,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8] 이정복, "통신 언어 문장 종결법의 특성", 우리말글, 22집, pp.123-151, 2001.